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이웃…한국의 情 나눠 주세요”

광주 정착 외국인 노동자 대변 인도출신 바수 무쿨 씨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4층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바수 무쿨(48)씨. 커다란 눈과 짙은 쌍꺼풀을 가진 이국적인 외모였지만 유창한 한국어로 기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하기를 주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특히 한국과 인도의 음식 문화나 여성들의 화장 등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로 양국의 문화를 비교하며 수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영어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만 맷돌 뿐 제대로 말하지 못하죠. 문법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그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겁내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바수 무쿨 씨를 소개하는 수식어는 여러 가지다. 영어선생님부터 요가선생님,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

동자들의 ‘대변인’까지. 그러나 그는 원래 인도에서 요가를 하던 수행자였다.

16살에 출가해 수행자의 삶을 살던 그는 인도 전역을 누비며 요가와 명상을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평범한 수행자의 삶을 사는 대신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생활 속에서 일반인들이 겪는 삶의 고뇌와 아픔을 몸소 체험하며 ‘생활 속 수행’을 하기로 다짐했다. 18살이 되던 해에 인도를 떠나 세계를 누비며 자진해서 고된 육체노동을 경험했다. 더 이상 수행자는 아니지만 일반인으로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모두 경험해보리라고 다짐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는 지난 1989년 요가와 명상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왔고 1992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그리고 2000년 귀화해서 한국인이 됐다.

세계를 누비며 지진과 홍수,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돋던 그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인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 중 뱅갈로어가 한국어와 아주 유사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모국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즐거웠죠. 한국과 인도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인데 언어가 이렇게 비슷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혹시 전생이 있다면 한국에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과의 인연은 특별했어요. 결국 한국에 정착하게 됐죠.”

이후 서울에서 유학생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본 한국인들은 인도 사람들처럼 정이 많았지만 이중적이었다. 같은 민족이나 서양인들에게는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지만 유색 인종에게는 차별과 멸시를 서슴지 않았다. 그 역시도 피부가 검다는 이유 때문에 구타를 당하고 육성을 들은 적도 많았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문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 왔고 외국인노동자와 이주여성 등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인터뷰하는 사이에도 제불입금을 상담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찾아왔다. 휴대전화를 통해 사업주의 폭력을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지만 앞으로도 한국인으로 살아갈 예정이다.

“제가 인도에 돌아간다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한국에 머물며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는 문화를 개선해보고 싶어요. 한국인은 인도사람들처럼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은 한국인만을 위한 정이죠. 한국인이 가진 정을 세계인에게 나눌 수 있는,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처럼 가난한 나라 사람을 위해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시-전남관광협회 업무협력 협약



광주시관광협회(회장 김홍주)와 전남관광협회(회장 이한철)는 지난 29일 양 협회 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관광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시관광협회 제공)

“23년 금융서 배운 사회공헌 건설 접목”

김준원 홍보산업(주) 총괄 전무이사 오늘 취임

“금융계 23년동안 이한 마케팅과 사회공헌 업무를 환경과 건설 업종에 접목시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선물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일 유기성 폐기물 처리업체인 홍보산업(주)(전북 군산시 서해로) 총괄전무이사 겸 홍보보건실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준원 전 광주은행 사회공헌사무국 본부장(50)은 “최근 기업의 화두인 도덕성과 다양한 사회적 기여 등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가 취임한 홍보산업(주)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 국내 1위 업체로 신용등급 A의 우량기업이다. 홍보산업은 음식쓰레기, 식품부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해 에너지화하는 기업이다.

송태현 홍보산업 회장은 경북 포항에 있



는 한동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한국 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광주은행에 입사한 뒤 마케팅과 기획·홍보 등 내·외부 업무를 두루 거쳤다. 특히 김 대표는 금융권 최초 광주은행 사회공헌사무국을 이끌며 사회공헌을 통한 고객밀착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일

‘제2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지영 신작소설 ‘높고 푸른…’ 출간



소설은 공지영이 ‘도가’ 이후 5년 만에 새 장편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를 출간했다.

소설은 한국전쟁 중 흥남 철수 때 목숨을 걸고 1만 4000명의 한국인을 구조한 마리너스 수사와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방인 성직자들의 삶을 통해 사랑의 의미와 인간적 품위에 대해 질문한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 “2012년은 많이 힘들 해였다. 나는 ‘하느님 대체 왜?’라는 오래된 물음을 격렬하게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3년이 왔다. 새해를 맞으면서 희미하게 나마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거칠고 품위 없는 세태가 나를 훌쓸어가기 전에 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했던 것 같다”고 썼다. /연합뉴스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남본부 CEO포럼 개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남운동본부는 30일 광양시 호텔필리모에서 제4회 전남CEO포럼을 개최하고, 5개 분과별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해 선포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남운동본부 제공)

전남도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미당’



전남도새마을부녀회(회장 황순호)는 최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녹색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한마음 어울미당’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도제공)

건협광주전남지부, 광주천 정화활동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본부장 강선규) 사랑봉사단 30여명은 최근 광주천 광천2교~광암교 구간에 노랑꽃첨포를 심고, 주변 청소도 실시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제공)

전남문화원연합 ‘제5회 문화원의 날’



전남문화원연합(회장 김석철)은 지난 29일 회관 청운관에서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 우뚝 서는 남도의 세상’을 주제로 ‘제5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임직원 및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지역문화 발전 특강, 우수 문화원 및 직원 표창, 화순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우수 지방문화원 시상식에서는 진도문화원(원장 박정석)이 전남도지사상을, 고흥문화원(원장 박정석)이 전남도지사상을, 고흥문화원(원장 송시종)이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구례문화원(원장 우두성)이 전남문화원연합회장을 수상했다. (전남도제공)

신안군, 지역산업정책대상 우수상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최근 대한상공회의 소상공인 협회(제10회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지역정책대상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정책 추진 우수사례를 평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우수한 지자체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공모사업이다.

신안군은 전일업 산업육성 사례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친기업 문화 조성, 혁신 행정가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안군은 정승준 부군수는 “이번 수상은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5만 군민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거칠고 품위 없는 세태가 나를 훌쓸어가기 전에 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했던 것 같다”고 썼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조현자(남부대학교 대학원장)·
오석심(광주광역시 공예명장)씨 장남 솔(광주은행 근무)군 이삼로(전지적공사 광주지사)·박은희씨 3녀 세지향=11월 2일(토) 오후 2시 호텔예술의 전당 5층 벨라지오홀.

동창동문회

▲제7회 대촌중학교 동창동문회(회장 나병호) 제6회 대촌중 운동대회=11월 3일(일) 오전 9시 대촌중 운동장 010-5604-6685.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숙) 월례회=11월 5일(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경주배씨 종시조 협경(고려개국공신)추양대제 경주배씨대종회(회장 배선홍)=11월 1일(금) 낮 12시 경북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방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2013년도 하반기 회원 한마당((사)남도문화예술진흥회 회장 김수홍)=11월 2일(토) 오전 11시 이장동동장(광주시 남구 포총사 100m 전), 광주공원 광장 앞 오전 10시 출발 010-5578-6202.
▲친환경농사업단=고연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제

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 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체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문 영농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정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종종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227-8877.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넣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살레시안 가족합창단원 모집(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전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풀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

모집(원장 1:1 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협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더쉽과 스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부·자격증반), 음악치료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치료자 자격증반. 북구 두암2동 무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3606-0230.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동그리미 언어학습센터=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그룹치료 및 검사 평가 월~금(오전 9시 ~오후 7시), 토(오전 9시 ~오후 2시) 남구 대남대로 113(2층) 062-433-5559.

부음
▲차사현씨 별세 형수(목사)·명수

(변호사)·미희(학원장)씨 부친상 박인애·강민정(속편내과 원장)·김홍삼(교사)씨 시부상=발인 11월 1일

(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병관씨 별세 정기·영숙·양순·옹희·송희·혜은씨 부친상=발인 31(목) 조선대병

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단례씨 별세 임용식(동서종합건설 대표이사)·용승(변호사)·